불교 東進과 발전의 역사를 되짚다

중국 선종사찰 순례
③ 백마사·용문석굴


중국 낙양의 용문석굴의 봉선사. 용문석굴에는 2000여 석굴과 감실이 있는 데 봉선사는 이를 대표하는 석굴이다. 당 고종의 발원으로 세워졌으며, 측천무후가 많은 지원을 했다.

낙양으로 이동하던 중 가이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예로부터 중원을 평정한 자가 천하를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가이드가 말한 중원이 바로 허난성을 말한다. 허난성은 중국 역사에서 적지 않은 호걸들이 패권을 놓고 각축을 벌인 장소다. 허난성에서도 낙양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실제, 허난성 낙양은 후한과 후당의 수도였으며, 북송 때까지는 서경(西京)이라고 불리었다. 또한 수·당대에 장안이 정치 수도였다면, 낙양은 경제도시로서 운하를 따라 물품이 한데 모이는 물자 집산지 역할을 했다.

양현지의 〈낙양가람기(洛陽伽藍記)〉에 따르면 낙양은 후한 당시에 11만 호(戶)가 살았으며, 사찰은 1378곳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송대까지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던 낙양은 불교에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다.

인도 고승들 흰말 타고 와
최초의 사찰 백마사 세워
중국 제1 古刹로 면모 '일신'

낙양 남쪽 위치한 용문석굴
운강·돈황과 함께 中 대표해
측천무후 모델로 만들었다는
17m 봉선사 대불에 '감탄'


용문석굴의 빙중앙동. 당시 불교조각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백마사 전경. 중국에서 처음 세워진 사찰이다.


백마사 현황을 설명 듣고 있는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들.

백마 타고 온 고승들이 전한 것

중국 낙양을 대표하는 사찰은 바로 백마사(白馬寺)다. 백마사는 중국에서 최초로 지어진 사찰로 잘 알려져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황제의 명으로 지어진 최초의 사찰이다.

황명으로 건립된 사찰인 만큼 창건에 대한 이야기도 남다르다. 후한 명제(明帝)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된다. 꿈에서는 머리에 광채가 나는 금인(金人)이 날아와 자신이 사는 궁궐 위를 몇 바퀴 돌더니 서쪽하늘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다. 다음날 신하들에게 금빛 사람의 정체를 물으니 신하들은 '부처'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명제는 서역으로 사신을 파견해 '불법을 구해오라'고 명령한다.

이듬해 사신으로 발탁된 채음과 진경 등은 서역으로 떠난다. 이들은 도중에 인도의 고승 섭마등과 축법란을 만나고, 이내 후한으로 함께 가줄 것을 간청한다. 섭마등과 축법란은 사신들의 간청에 따라 낙양으로 오게 된다. 당시 이들은 흰 말에 불경을 실어 낙양에 당도했다. 그리고 영평 11년(서기 68년)에 낙양에는 '백마사'라는 이름의 사찰이 세워진다.

백마사는 '중국 제1 고찰'로 불리우며, 국내외 참배객들이 찾는 성지가 됐다. 남향으로 배치된 백마사는 총면적만 4만㎡에 달할 정도로 크다.

이제는 국제화 사찰로 발전

백마사는 중국 불교의 발원지라는 의미에서 '석원(釋源)' 혹은 '조정(祖庭)'이라고 불린다. 사찰은 남북 중심선으로 천왕전·대불전·대웅전·접인전·비로전 등이 배치돼 세계에서 온 참배객들을 맞이한다. 사찰 입구 앞에는 송대에 제작된 백마상 2개가 있으며, 정문은 3개의 아치형 대문으로 이뤄져 한나라 시기의 건축 기교를 보여준다.

백마사에는 창건의 주역인 섭마등과 축법란의 활동상이 담긴 곳이 2곳 있다. 바로 '청량대(淸凉臺)'와 '등란묘(騰蘭墓)'이다.

접인전을 지나면 벽돌을 쌓아 만든 높은 대가 보이는 데 바로 이것이 청량대다. 본래는 명제가 피서와 독서를 하며 지내던 곳인데, 섭마등과 축법란이 낙양에 오고나서는 이곳에 거주하면서 불경을 번역했다고 한다. 최초 한역 경전인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이 탄생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등란묘(騰蘭墓)'는 섭마등과 축법란을 기리는 묘역이다. 두 스님은 백마사에서 경전을 번역했고, 이후 백마사에서 입적했다. 어떻게 보면, 역경불사의 기원지도 백마사인 셈이다.

불교 동진(東進)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백마사는 이제는 국제화 사찰로 변모하고 있다. 태국, 인도 등의 불교사원이 함께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1년 태국 내무부 장관 와타나 아싸와헴이 백마사를 방문했을 때, 중국과 태국 불교계의 우의를 증진하고자 백마사에 태국 사원을 건립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1997년 낙성됐다. 이후 2010년에는 여러 부속 건물들이 세워지면서 규모가 커졌다.

인도도 백마사에 불교 사원을 세웠다. 2004년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前 인도 총리가 백마사를 방문해 자신의 선조인 섭마등과 축법란의 묘역을 참배한 것을 계기로 설립이 추진됐다. 2005년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인도 방문 당시 조인식을 맺고, 2010년에 완공됐다.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사원은 미얀마다. 만달레이 왕궁을 모델로 지어진 백마사의 미얀마 사원은 2014년 낙성했다. 쉐다곤 파고다를 3:1로 축소한 탑도 참배객들의 이목을 끌기 충분하다. 이 탑을 장식한 재료는 모두 미얀마 정부에서 보내온 것이라고 한다.

불교 동진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백마사는 이제는 중국불교의 굴기(屈起)를 보여주는 사찰 중 하나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오로지 아름다울 뿐

후한 명제가 중국 최초 사찰인 '백마사'를 건립한 이래, 불교는 중국에 성공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낙양에만 1천여 곳의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질 정도였으니.

경전이 전해지고, 수행법이 알려지면서 이제 사람들은 숭앙해 마지않던 부처님과 보살, 그의 제자, 고승들의 존상을 세우고 싶어졌다. 낙양에 불교미술의 집약체인 용문석굴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용문석굴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산서성의 운강석굴과 돈황 막고굴과 더불어 중국 3대 석굴로 불리운다. 특히 용문석굴은 정교하고 아름다운 조각으로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큰 굴은 서산에 28개, 동쪽 산에 7개가 있으며, 그 외에도 2000여 개의 작은 굴과 감실들이 있다. 이렇게 규모가 크다보니 주차장에서 몇 시간을 꼬박 걸어야 용문석굴의 일견을 볼 수 있다.

용문석굴은 동위, 서위, 북위, 북제, 북주, 수, 당, 북송 등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성됐다. 그중에서도 북위와 당대 석굴이 가장 많다. 비율로 보면 당대 석굴이 60%로 가장 많고, 북위는 30%정도다.

용문석굴에서 순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봉선사(奉先寺)'라고 불리우는 석굴이다. 봉선사에는 높이 17m에 달하는 노사나불이 있다. 불두(佛頭)의 크기만 5m이다. 당 고종이 발원한 노사나불은 함형 3년(672)부터 상원 2년(675)까지 만들어졌다. 또한 가섭과 아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두 명의 천왕과 두 명의 역사로 이루어진 봉선사의 조각은 중국 석각예술의 최고봉으로 손꼽힌다.

적지 않는 사람들은 용문석굴을 상징하는 노사나불이 막대한 공사 대금을 지원했던 측천무후를 모델로 만들어졌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제왕을 모델로 불상을 조성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많았지만, 최고 권력자가 아닌 그녀를 대불로 형상화했다는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그녀가 전무후무한 여황제가 된 시기도 봉선사 대불이 완성된 것보다 15년 뒤인 690년이다.

측천무후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곳은 '마애삼불감(摩崖三佛龕)'이다. 마애삼불감의 조성이 시작된 시기는 그녀가 제위에 오르면서다. 측천무후는 스스로 '자씨(慈氏)'라 칭했는데, '자씨'는 미륵을 의미한다. 미륵의 화신이라는 것이다. 구세를 바라는 미륵신앙을 측천무후는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고, 이를 이용해 황제에 즉위한다. 하지만, 약 15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권력을 누렸으며, 마애삼불감도 미완성으로 끝난다.

흰 말과 함께 온 서역의 고승들은 경전을 전하고, 사찰을 건립해 불교를 안착시켰다. 이후 문화수도였던 낙양은 500여 년이 넘는 시간동안 불교가 융성했던 성도(聖都)였다.

중국 낙양=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